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

저세지는 전체주의 세력

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근본 원인은 물론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라 불리는 공산주의 권력 구조가 독재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다. 레닌이 고안한 이 제도는 권력이 한 조직에 귀속되므로, 권력의 분립을 통한 독재 예방이 불가능하다. 집단지도 체제를 통한 권력의 인적 분할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구조적 분할을 대신할 수 없다.

중국을 7퍼센트가량 되는 공산당원들이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면서 나머지 인민들을 착취하는 계급 사회다. 이제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으니,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터이다. 불만이 큰 인민들을 달래는 방안으로 시 주석이 내놓은 것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민족주의적 약속이다.

물론 이런 방안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뜻한다. 이미 중국은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 왔다. 자연히, 국제 질서가 많이 무너졌고 작은 이웃 나라들은 점점 큰 위협과 고통을 맞는다. 거대한 시장을 바라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재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의해 피해를 본다.

그러나 중국이 빠른 경제 발전에 성공하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자, 인민들은 그를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라서, 인민들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작다. 앞으로 중국의 공격적 행태는 더욱 거칠어질 터이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강국이 또 있다는 사실이다. 근년에 러시아는 무리없이 행동해 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부추긴다. 시리아에선 압제적 정권을 떠받쳐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자유로운 국가들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조작된 정보들을 유포해 왔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정보 기관이 대규모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망명한 기업가들이나 전직 정보 요원들을 살해했다. 이제는 신형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온 세계를 위협한다.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전체주의로 퇴행한 데서 나왔다. 그를 비롯한 비밀경찰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사회는 억압적이 되고

인권과 재산권은 가별게 훼손되고 부패는 심해졌다. 자신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그는 시진핑 주석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가 제시한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에 인민들은 열광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해서 자유세계에 맞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체제를 약화시켜, 자신들의 전체주의를 강요하려 한다.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은 미국 뿐이다. 분열된 유럽은 전체주의 세력에 유화적이었다. '미국 중심의 평화'(Pax Americana)라는 말이 가리키듯, 세계가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 온 것은 온전히 미국 덕분이다.

이제 전체주의 세력이 기력을 회복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비슷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면서, 자유세계의 앞날이 점점 어두워진다. 자유세계는 미국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려 애써야 한다. 전체주의 세력의 핵심인 중국과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을 또렷이 인식해야 한다.

社說

평화당·바른미래당도 후보 영입 서둘러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영입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소속 의원 14명 중 9명이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후보 출마를 고려 중이고 김경진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평화당 입장에서 정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현역 의원 차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사정은 더 어둡다. 오랫동안 '도박'의 꿈을 키워온 주승용 의원이 일찌감치 전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도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두 당의 간판을 내걸고 나오는 후보를 보면 지금까지는 평화당에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서종진 부이사관 출신 전직 공무원이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정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평화당과 바른미래

당이 인불난을 겪는 이유는 낮은 정당 지지율 때문이다. 두 당의 정당 지지율이 고작 7~8%에 머물고 있어 인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섣불리 이들 당의 뜻을 입고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창당 후 처음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당의 입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 하겠다. 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자칫 정당의 존립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은 후보 영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참신한 인물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선거 후에도 결과를 떠나 지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당에 보다 많은 참신한 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랜만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연 좋지만 실외 흡연시설 도입 고려해야

최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건물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금연 구역은 늘어나지만 흡연 구역은 거의 없어 골목길이나 길거리 흡연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골목길이 공초로 뒤덮이는 등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길거리 흡연 상태를 둘러봤더니 상가 주민들이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흡연자들이 몰릴 때면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는 곳까지 있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 매기박스 영화관 주변 골목이다. 광ZYMCA 뒷골목은 점심 때만 되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길바닥은 담배꽂이로 가득 차서 불법이 된다. 광주시 서구 상마지구 대형 빌딩의 경우 대부분 1층 뒤편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 때문에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길거리 흡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흡연 공간 때문이다. 광주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만4084곳이나 되지만 실외 흡연시설은 광주 남구청 민원실 옆을 포함해 모두 두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걸어서 5분 거리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밖에서 흡연 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흡연 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큰 도로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행자를 배려해 대체로 만들어진 흡연이 하는 등 구체적인 흡연 구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금연이 대세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는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닌 데다 엄폐인 담배값의 52%가 세금인 기호식품인 만큼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 흡연권 보호와 흡연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길거리 흡연 시설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無等鼓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03년 경력직 검사 특별 채용을 거쳐 검찰에 복귀해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했다. 당시 출입 기자로서 개인적으로 궁금해 "애 변호사를 잡고 검찰로 복귀했나"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범죄자를 단죄하던 임장이었다가 반대로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최질 이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초임 검사처럼 결기 있는 다짐도 했다. "뭘 바랬나. 오직 검사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하루는 그가 다급하게 보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상기된 얼굴로 목정을 높였다. 특별한 것도 없는 특허 공법을 내세워 건설업자들이 해를 행태를 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주전자 뚜껑

에 구멍을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은 방식을 특허 공법이라고 해서 공사를 따내는 식이었다. 그는 정부에서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특허 제도를 이처럼 업자들이 악용하는 관행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윤 지검장은 일을 마치면 곧바로 관사에 가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하자"고 청했는데 정색을 하고 거절해 무안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는 "술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다만,

지역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인연에 얽히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역시 '윤석열'이구나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는 목욕비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뉘겠나마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에 무척 반갑기도 했다.

그가 다시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섰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났으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도 깊어질 것이다. 부디 '특수통 검사 윤석열'로 깊이 기억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종교칼럼

광주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장현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광주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무도 마음이 저러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4일 저녁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은 날씨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지요. 20미터나 되는 철탑은 현없이 높게만 보였지요. 그곳은 누워 있을 공간도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거기에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결사반대! 체불입금 해결하라!"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 가슴으로 조삼수 회장에 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응원합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강을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바로 대표님이 답장을 보냈지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성과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광민회 공동 대표이기도. 저 거대한 자본의 물결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생명의 깃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희망과 슬픔이 함께하는 막막한 시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우리 모두 아들이며 형제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렇게 온몸을 철탑에 올라갔을까요? 금호타이어 재권단인 산업은행이 중국기업 더블스타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지회장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0여년 가까이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더불어 애환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향토 기업입니다. 아마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나 많은 차량의 신발과도 같은 '금호표' 타이어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로 2010년 워크아웃 때 노동 형제들은 실패한 경영자의 모든 빚을 임금과 복지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노동 형제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을 분담하면서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광주 지역 경제를 한국 GM 사태 제2의 군산이나, 상하이차 사태 제2의 쌍용차로 만드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금호타이어 노동 형제들

은 주야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시시오. 광주 지역 경제의 15%를 차지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2만여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광주다움'이 무엇인가요? 더불어 사는 광주입니다. 바로 대동 정신이지요. 광주 정신은 주먹밥 정신입니다.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일은 광주 정신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노동 형제들은 주저앉아 당할 수만 없어 또 다시 뭉쳤습니다. 요구르트와 빵을 나눠 먹고 서로서로 힘내자고 어깨 다독이며 손을 마주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시오. "금호타이어 지키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해외매각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해달라고 말입니다. 농성장에도 방문하시고 서명도 해주세요. 봄을 사생하는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꽃 피는 봄은 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본 소식이 들려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으로 손과 손을 마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인도 지방 정부와 교류 협력 기회 창출해야

또한, 2020년까지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2014년 이후 '디지털 인디아'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에 큰 관심을 가지며 스마트시티, 제조 혁신과 같은 신기술 응용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미 중남부 지역인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타밀나두주 첸나이를 중심으로 인도의 실리콘벨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인도의 기회요인을 분석해 에너지, 정보통신, 농수산 등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관심 분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인도 지방 정부와 새로운 교류 협력 기회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텔랑가나주는 인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하이데라바드시는 정보기술 및 의료분야 산업의 중심지로써 인도 IT 관련 수출 2위이며, 안드라프라데시주는 농식품 가공, 우주항공, 석유 화학, 자동차, 에너지, 해양항만 산업이 발달하여 이들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기회 요인은 제조업 육성, 적극적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IT 분야 고급 인력 양성, 통신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인터넷진흥원 등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도의 창업 지원 기관인 T-HUB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도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에너지벨리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도는 교통 혼잡, 식수 불량, 대기 오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최첨단 IT 활용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도시화 추세 확대에 의해 기존 인프라 개선과 신규로 보건·교육·주택 시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새로운 주도인 아마라바티 건설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분야의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도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도는 2030년 이후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하여 올해 45주년을 맞이했으나, 광주와 전남은 인도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사례가 없다.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대한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정 치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안 실 220-0536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